

대구주보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2013.11.17.(다해) 제1863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2013년 10월 영성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작
〈여리지만 강인한 신앙〉 문혜정 (파우스티나, 지좌성당) _ 사진설명 6면

† 오늘의 전례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5-19 참조)

헤로데 대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 중건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고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인들의 손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1독서 말라 3,19-20

제2독서 2테살 3,7-12

복음 루카 21,5-19

입당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화답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 오신다.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권대진 다마소 신부 | 2대리구 청년담당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것, 수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지금, ‘나는 올 한 해,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故) 최인호 씨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천사와 같은 머리 깎은 어린 환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다. 그렇다면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은 내 귓가에 속삭이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아이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요한 9,3)”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

녀인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위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보십시오.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 같은 비난의 말이, 왜 저에게 이 같은 오해가, 왜 저에게 이 같은 시련이?’

“이런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루카 21,13).” 삶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만을 바라며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는 성부의 뜻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평신도로서 우리들이 증거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대진**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③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기도를 바치는 바른 마음가짐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첫째는 하느님을 닮았다는 의지와 열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를 ‘어린이처럼’(마태 18,3) 되게 하는 ()하고 ()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철부지들’(마태 11,25)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85항 참조)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문화홍보실



작년 10월 11일 교구 내 전 본당에서 일제히 개막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시작된 <신앙의 해>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신앙의 해는 우리 삶의 중심인 믿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믿음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다시 선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수한 교우들이 신앙의 해 전대사의 특전을 얻기 위해 성지를 순례하고 성사에 참례하였으며,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가톨릭교리신학원을 위시한 교구의 여러 기관·단체와 대리구 및 본당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공의회 문헌을 공부하고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교구에서는 한국 최초로 젊은이를 위한 견진 교리서를 편찬하였고, 대리구와 본당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견진성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또 많은 본당 공동체와 신심 단체, 사도직 단체들에서 신앙의 해 동안 성경 통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앙 쇄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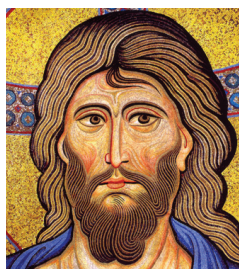
이제 신앙의 해는 다음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끝이 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찰하고 다짐한 것들은 생활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꾸준히 가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쇄신되어 활기에 넘치는 신앙은 증언으로 드러납니다. 달리 말해 전교하고 봉사하며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오늘날 세상에 특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비추는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믿음의 문』 14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도 “오늘날의 세상은 스승의 말을 기꺼이 듣지 않습니다만 증거자의 말은 듣습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41항)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동네 이웃에게, 우리 사무실 동료에게 그 증언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신앙의 해>가 구호와 행사로만 이어지다가 끝난다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모님 태중에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총도 사람의 모습, 곧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이 명령을 하신 분께서, 그 말씀을 따를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필문**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문화홍보실



신경은 사도신경이든 보다 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든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위격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느님에 대하여,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께 대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신 성령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므로 성령을 주님이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라는 말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동등하고 완전히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성령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에 혼돈 위를 휘도시었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하시어 천상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생명,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사도 17,28)하신 말씀은 이 뜻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신자의 삶에 생기와 열정을 불어넣으시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성령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기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으신 대로만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되새기게 해 주시는데,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요한 16,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곧 하느님이시므로, 하느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몽땅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바치는 사랑,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능력의 총화이며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골로 3,14**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20 세 아스날 프로축구클럽에 유소년으로 발탁, 21세 부모님 사망, 22세 경기 중에 갈비뼈 골절, 23세 벼락맞음, 25세 재기, 26세 결혼, 27세 곧바로 이혼, 28세 형제의 죽음, 29세 보증을 잘못 서서 쫓딱 망함.

30 세 폐암 진단 받음, 31세 폐암 완치, 32세 선수 복귀, 33세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 파손, 34세 왼쪽 손목에 총 맞음, 36세 막바지 선수생활 중 인대 절단됨, 38세 은퇴, 39세 코치생활.

40 세 폐암 재발, 44세 폐암 완치, 45세 감독 생활, 46세 식중독으로 고생, 47세 벼락을 또 맞음, 49세 집에 화재 발생.

50 세 감독직 해고 당함, 51세 노숙자 생활 시작, 52세 노숙자 생활 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60 세 출소, 63세 조그마한 인쇄소 공장에 취직, 66세 인쇄소 사장이 됨,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됨, 67세 사회에 재산 헌납.

70 세 명예퇴직, 71세 늦깎이 재혼, 73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됨, 74세 폐암으로 사망.

이 소설 같은 인생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1928년 생 영국인인 스티븐 비게라입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는 한 때 일 뿐입니다. **꽃**



금주의 성인



성 클레멘스 1세 교황(11월 23일)

제4대 교황님이신 클레멘스 성인께서는 분열된 코린토 교회의 일치와 평화를 위해 바오로 사도께서 쓰신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같은 이름의 편지를 쓰셨는데, 신약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문서 가운데 하나이자 최초의 교부문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스도교 박해로 목에 닳을 달고 바다 속에 던져져 순교하신 성인께서는 석공(石工)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는다.



■ 제6회 4대리구 한마음축제



4대리구에서 개최한 제6회 한마음축제가 11월 9일(토) 오후 2시 포항대학교에서 1,200여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된 미사를 시작으로 4대리구 카리타스협의회 발족식과 다양한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5대리구 청소년 견진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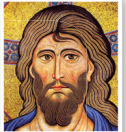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0일(일) 오후 3시 구미대학교에서 5대리구 청소년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5대리구는 그동안 각 본당별로 견진교리를 실시하여 이날 378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기사제공 : 월간 <빛>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10월 당선작

- 최우수상 : <여러지만 강인한 신앙> 문혜정(파우스티나, 지좌성당)
“바람 따라 흔들리는 역새길목에서 꺾이지 않는 신앙심을 보여준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무한한 사랑의 버팀목을 다시 한 번 탄탄히 일구어 봅니다.” (한티성지)
- 우수상 : <간구> 권장대(베드로, 만촌3동성당)
- 장려상 : <자연의 모습에서 당신을 봅니다> 박준화(보나, 성당성당)



2012
2013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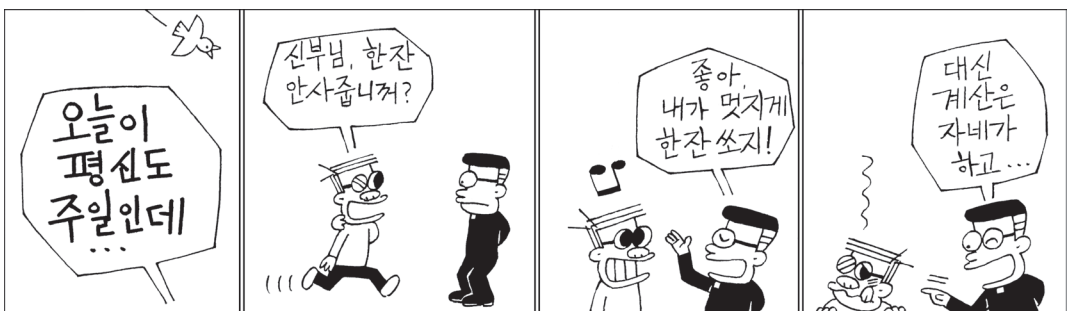
연중 제30주일(10월 27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청원, 전구, 감사>입니다.

당첨자 : 최선일(수산나, 성동), 이지홍(루시아, 장량), 김용재(요셉, 연일),

김영희(마리아, 효목), 김덕곤(베드로, 연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1월 18일(월) 10:00 경산성당	구미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1월 20일(수) 19:00 신평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월례미사	11월 23일(토) 11:00 성모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8일(월) 11:00 수성성당	바느기도회 18주년 추계 대피정 미사	11월 28일(목) 9:30 삼덕성당
행복한요양병원 미사	11월 19일(화) 10:30 병원 6층	-	-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23(토) 16:00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본부
주제: 예수회의 양성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315차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기간: 12.13(금)~15(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2박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11.22(금)~24(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 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6)646-0583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전례 피정

기간: 12.23(월) 16:00~25(수) 13:00
장소: 왜관성베네딕도피정의집
참가비: 12만 원, 세면도구 지참
농협: 301-0087-0776-61
문의: (054)971-0722

춘천교구 천생연분 피정

오상철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재혼 수시접수 중
네이버 카페: 모곡 피정의 집 참조
문의: (033)434-4204

성모기사회(7080모임) 피정

일자: 11.24(넷째 주일)
시간: 9:00~17:00 / 회비: 5천 원
장소: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7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2.14(토) 11:00~15(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

교육 | 모집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성경통독 특목데이

일시: 매주 화 19:3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대상: 20~40세(남, 여)

과목: 불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문의: 622-4346

충주성모학교(시각장애) 학생모집

대상: 교육·직업재활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지원: 순회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특전: 장학혜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문의: (043)852-1374
연중 상담 가능합니다.

순교자현양회(서울대교구) 일본성지순례

일자: 12.17(화) / 다른 날짜 전화문의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등
해설·강의: 김길수 교수
회비: 57만 9천 원(4박 5일)
문의: (02)318-7202 / (02)778-5100

제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23(3주, 5주, 7주)
정규학교 아일랜드학생들과 수업
대·일반: 1.6~2.16(6주, 10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퍼시엔터,
(02)3446-4253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가)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수맥 흡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광천 이조맛김
김·건어물·젓갈류 판매
상천(광천)을 대만 및 러시아, 싱가포르, 자모비 등 각종 단체 기공유용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분사: (041) 641-3838 대구지사: (053) 255-3836
농협 | 351-0054-3404-831 예금주 이경숙
한기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리컬은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김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척추·관절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페파노), 서영준(안드레이)
성당시장재거리 ☎ 053)628-4111

제5회 성경암송발표대회

일시: 11.23(토)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행사 | 모임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전시회

기간: 11.15(금)~19(화)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1.18(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전례꽃꽂이연구회 강좌반 모집
기간: 10.21(월)~11.30(토)
문의: (010)3546-8339

원동수 신부 그림 전시회

‘가난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신암본당 세번째 자선 바자회
기간: 11.24(일)~12.1(일), 신암성당
다음카페: 갤러리 빛과 색
(혹시 화환 주실려면 자선금으로 대신!)

바오로딸 묵주, 성물 전시회

아름답고 품위있는 묵주와 성물 전시, 보급
기간: 11.26(화)~12.5(목)
장소: 바오로딸 서원(동성로)
문의: 425-5185 / (010)2658-5185

교육 | 모임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특강

일시: 11.23(토) 10:00,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구약성경의 올바른 이해 / 5천 원
강사: 송재준(마르코) 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수강생 모집

플룙, 바이올린, 오카리나, 우쿨렐레, 통기타, POP, 초코아트, 토포인팅, 백 세건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부설

효성유치원 교사채용

문의: (010)9263-6933

상지유치원 교사 채용

경력: 3~4년 몬테소리교사자격증 환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558-4422 / (010)8802-6839

성탄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7(수),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녀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성명: 문지환(안드레아), 김경화, 김해영 (리디아), 이상훈(루치오)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4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순번추첨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첨**은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사전서류접수 기간: 11.4(월)~19(화), 제출방법: 문화홍보실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13:00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공신장실 아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학대학교수 원장 권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진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영희(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움!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당수로중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벌어동 경신교 입구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053)752-9797

김영표버섯명가
www.pogokim.com
• 유기농버섯(표고·상황) 재배
• 체험학습(건강·교육) 농장
• 버섯요리전문점 (Slowfood)
☎ 053)852-7576 남경화(헤레나)
영남대학교역에서 경신C 방향 5Km 위치